

貯藏 플루토늄 査察

지난 4月8日 서독 연방환경청 Klaus Toepfer 長官은 서독이 비축하고 있는 플루토늄을 査察하였는데, 연방정부의 각료가 Hanau의 Alkem 플랜트에 있는 병커를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現地에는 2.5톤의 플루토늄이 있는데 그중 2.2톤은 濃縮우라늄 15톤과 함께 國家가 管理를 맡고 있으며, 나머지 0.3톤은 플루토늄을 함유하는 핵연료의 제조허가를 갖고 있는 Alkem에 의해 보관되고 있다.

Toepfer長官은 國家가 보유하고 있는 플루토늄의 관리책임이 聯邦物理技術研究所에서 Transnuclear 스캔들 이후 단행된 조치의 일환으로 새로 설립되는 聯邦放射線防護廳으로 이관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산화물형태로 보관되어 있는 國家保有의 플루토늄은 Euratom와 IAEA에 의해 封印되어 있으며, Alkem이 管理하는 核物質은 주로 KNK實驗高速爐와 SNR-300 原型高速爐用 核燃料핀인데 輕水爐에서 재순환된 혼합산화물 핵연료핀도 소량있다.

프랑스

原電解體技術 蘇聯과 提携

Framatome사와 소련 원자력성은 원자력발전소 해체기술 협력에 관한 잠정적인 협정을 맺었다. Framatome사의 한 관계자는 이 협정이 양국간의 보다 광범한 협력을 위한 「첫 발을 내디딘 것」이라고 표현했다. 이것은 Framatome사가 1983년 소련과의 협력관계를 모색하기 시작한 후로 처음으로 맺어진 협정으로 6월 28일 모스크바에서 Framatome사 Degot부사장과 소련 원자력성 산하의 원자력발전소운전연

구소 소장인 Abagyan씨 간에 서명되었다.

Framatome사에 의하면 소련의 이번 조인을 소련 원자력성과 「국제 원자력발전소 해체기술 협회」의 두 이름으로 서명된 것이라고 한다.

Blayais - 1호기 安全注入系統 誤動作

EdF사의 Blayais-1 PWR에서 안전주입시스템이 동작하는 사고가 6월29일 발생했다. 이 사고는 1차계통 파이프의 파열로 볼 수 있는 원자로 안전계통상의 기준치를 조정 설정하는 과정에서 터빈 바이패스밸브를 시험 개방했을 때 일어났다. EdF사에서는 이 사고를 동사의 원전 중대사고 척도상의 Level-I 사고로 규정지었다.

EdF. PWR에 필터벤딩시스템 設置推進

프랑프電力廳(EdF)은 爐心熔融事故時에도 格納容器的 健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1989년 여름까지 프랑스內 모든 PWR에 필터가 부착된 壓力放出安全시스템을 설치할 예정이다.

프랑스에서는 Paluel 1, Paluel 2, Cattenom 1, Cattenom 2, Belleville 1, Belleville 2, Nogent 1, Nogent 2 등 1,300MWe級 發電所에 대해서는 이미 샌드베드필터시스템이 각 발전소에 설치되어 있으며, Chinon B1/B2와 Chinon B3/B4 등 900MWe級 발전소에 대해서는 2基當 1 시스템이 공유 설치되어 있다.

日本

原子力發電의 信賴性を 實證

日本 通商産業省은 6月 16日 '87年度의 日本